

소비자물가 한 달 만에 3%대 재진입

한국의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 넘게 뛰어올랐다. 사과 꺾 등 과일값 폭등세가 잡히지 않는 데다 기름값까지 오르면서 한 달 전(2.8%)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6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한국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작년 10월(3.8%) 4%까지 근접한 물가 상승률이 11월 3.3%, 12월 3.2%, 올 1월 2.8%로, 석 달 연속 하락하다가 다시 3%대로 오른 것이다.

사과 꺾 등 과일 가격 급등세가 물가 전반을 끌어올렸다. 냉해, 장마, 폭염 등 지난해 닥친 각종 이상기후로 생



▲ 서울 영등포 청과물 시장에서 사과 한 개 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

산량이 준 사과와 사과는 병충해 등으로 수입이 안 돼 1년 전보다 71% 뛰었다. 겨울철 수요가 많은 꺾 가격 상승률은 78%에 달했다. 이런 신선 과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41.2% 올랐다. 1991년 9월(43.9%) 후 32년5개월 만의 가장 큰 상승폭이다. 1월 중순부터 다시 오르는 국제 유가도 물가에 반영됐다.

한국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원을 투입하고 수입과일 가격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식품업계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등 2%대 물가 달성을 위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집값 하락세 지속 ... 양극화 심화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의 여파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가격 간극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내림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역별 양극화도 계속될 전망이다.

5일 KB부동산 월간주택 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가격 상위 20%(5분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4억 6381만원으로 전월(24억 6461만원보다) 80만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기간 가격 하위 20%(1분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억 9825만원으로 전월(4억 9913만원)보다 88만원 하락했다. 낙폭만 보면 유사하지만 주택 가격 차이를 고려하면 하위 20% 아파트 낙폭이 훨씬 크다.



▲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양극화는 보다 심화될 전망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4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자산관리전문가(PB)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시장 전문가 74%, 공인중개사와 PB 79%가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 대부분은 올해 서울(49%)과 경기(37%) 지역의 주택 경기가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서울 외곽지역은 대출을 많이 받아 매수하는 일명 '영끌족'의 매수가 많았던 곳인데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경기 침체, 대출규제 강화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입지별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75살 이상 "2명 중 1명, 빈곤"



▲ 서울 중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한 어르신이 패지를 모은 손수레를 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의 75세 이상 노인 중 중위소득 50%에 못 미치는 빈곤층 비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국 사회보장위원회는 이날, 2020년 기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로 분석한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가처분 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은 45.6%다. 남성 노인의 빈곤율은 41.2%인데 반해 여성 노인의 빈곤율은 49%로 높게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은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일컫으며,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외하고 연금 등 이전 소득을 보낸 것이다. 거주지별로 구분하면 대도시 노인의 빈곤율은 42.1%, 중소도시는 47%, 농어촌은 57.6%였다.

초기 노인인 65~69세 빈곤율은 35%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빈곤율이 높아져 70~74세 44.2%, 75~79세 53.7%, 80세 이상 56.6%의 빈곤율을 보였다. 75세 이상 노인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구분 없이 빈곤율이 모두 50%를 넘었으며, 특히 농어촌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빈곤율은 67.5%에 달했다.

가처분 소득의 경우 전체 노인 평균 1170만원인데 반해 빈곤 노인은 804만원이었다. 특히 사업이나 근로 등을 통해 직접 벌어들이는 시장 소득의 경우 전체 노인은 625만원인데 빈곤 노인은 135만원에 그쳤다.

테메쿨라 한인 치과 오픈!

TOWN CENTER DENTAL

·타운 센터 덴탈· 무료상담!

가족을 치료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 진료

임플란트 / 신경치료 / 크라운 / 보철치료 / 틀니

ALL PPO, LIBERTY, ALL MEDI-CAL, DENTI-CAL, IEHP, MOLINA

T.951.693.9595

29700 Rancho California Rd. STE G5, Temecula, CA 92591
Mon - Wed, Fri. 9:00AM - 6:00PM

GRAND OPENING

임플란트 \$1,200 부터

